清潭 李重煥의 地理思想에 關한 研究

朴 英 漢

〈目 次〉

Ⅰ. 序言
Ⅱ. 擇里志에 關한 研究動向
Ⅲ. 擇里志의 構成과 內容
Ⅳ. 李重煥의 地理思想
1. 立地와 空間的 相互作用論
2. 人間—環境 關係論
3. 地域的 相異性의 認識
Ⅴ. 李重煥의 國防地理論
Ⅵ. 要約및 結言

Ⅰ. 序 言

本研究는 朝鮮後期 實學派 學者의 한사람인 李重煥의 地理思想을 考察코자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著書는 擇里志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擇里志에 內在된 中心思想과 이 思想을 전개하기 위해서 理論的 體系를 수립한 그의 地理思想을 究明코자 한다. 擇里志의 번역본은 몇가지가 있으나 가장 최근에 나온 李泳澤氏의 번역본[1]을 참고로 한다.

李重煥은 1690年에 태어나서 1713年 增廣別試에 及第하여 官職은 兵曹正郎에 이르렀다. 그러나 辛壬士禍의 결과 1725年 몇차례에 걸쳐 刑을 받고 다음해 12月에 絶島로 流配되었다가 1727年 10月에 풀려났다. 그러나 그해 12月에 司憲府의 彈劾을 받아 다시 먼지역으로 流配되는 신세가 되었다[2]. 그후 그는 일정한 거처없이 全羅道와 平安道를 제외한 全國의 각지방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것 같다. 知識水準이 높은 그는 전국을 답사하면서 自然과 人文現象을 예리한 안목으로 관찰하여 人間 居住地에 關한 體系的 저술을 행하였으니, 이것이 擇里志인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擇里志 이전의 地理的 現象에 대한 考察은 風水地理, 地方誌, 數理地理의 3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風水地理는 陰陽五行說과 결부시켜 人間의 居住地나 葬地의 선택에 응용된 原始的인 自然과 人間 關係論이다. 즉 風水地理說은 土地에는 正氣나 生氣가 있으며, 이 生氣는 一定한 地形에 응결집중한다고 가상하고 그 正氣가 집중한 곳에 葬地나 宅地를 선정하면 本人 또는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3]. 이 思想은 人間에 대한 自然의 절대적 영향을 논한 것이라 보겠다.

둘째, 地方誌는 행정구역에 따라 각 지방의 연혁 地勢, 産物의 産地 等 自然과 人文現象을 백과 사전식으로 나열한 官撰地理志를 들수있다. 中央集權的 體制下에서 효과적인 통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정 지역 또는 국가 전체에 대한 현실 파악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들 官撰地理志는 地域 記述에 대한 地理學的 理論展開가 결핍된 것이었으나 地域에 대한 상세한 記述로 말미암아 科學으로서의 地理學 發展에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째, 數理地理는 地域의 位置 形態 크기등을 나타낸 地圖製作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것은 國土의 空間認識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韓國의 전통적 地理知識은 記述의 상태에 머물렀으나 풍부한 記述的 知識과 自然環境을 人間과 결합시킨 점은 地理學의 發展을 위

1) 李重煥著, 擇里志, 李泳澤 譯註, 擇里志, 三中堂 1975.
2) 金潤坤, 清潭 李重煥, 實學論叢,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75. p.409.
3) 李燦, 韓國地理學史, 韓國文化史大系Ⅲ(科學技術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5. p.409.

한 素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下에서 地理的 現象에 대한 記述에 變革을 가져온 것이 李重煥의 擇里志인 것이다.

Ⅱ. 擇里志에 關한 研究動向

擇里志에 關한 研究는 주로 地理學者와 歷史學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前者는 擇里志의 內容에 대한 解題를 겸하여 現代地理學的 觀點에서 分析을 시도 하였고, 後者는 그 時代의 歷史的 社會的 상황과 관련된 현상을 파악코자 하였다.

前者에 속하는 徐樹仁氏는「擇里誌研究序說」에서 李重煥이 擇里誌를 現代地理學의 二元化와 일치하는 一般地理學과 地誌로 분류하여 科學的 體系化를 도모한 점을 높이 평가 하였다. 그리고 地理的 現象을 논함에 있어서 自然環境과 人間生活과의 相互關係를 추구한 地人相關論은 Ritter와 Humboldt 보다 앞선 것이라고 논술하였다[4]. 그러나 徐樹仁氏는 擇里志에 전개된 人間·環境關係論을 體系的으로 分析하지 못한 것 같다. 盧道陽氏는「八域志「可居地」解說」을 통하여 李重煥이 제시한 可居地의 立地條件을 해설한 후 可居地의 差級과 그 分布를 다루어 人間 居住地의 類型分析을 시도하였다[5].

윤홍기氏는 擇里志에 關하여 두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6]. 그에 의하면 李重煥은 人間과 自然과의 關聯性을 기반으로 한국에 있어서 聚落의 最適場所(optimal sites)를 발견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清潭은 歷史的, 記述的, 地域的, 系統的 approach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聚落의 立地因子 중에서 聚落이 자리잡은 장소의 상대적 利點을 중시한 점과 環境知覺 (environmental perception)을 예감한 것을 높이 평하였다. 그러나 李重煥은 風水地理說(the ideas of geomancy)을 제거하지 못하고 決定論的 觀念을 흔히 강조하였다고 결론지우고 있다[7].

李重煥에 대한 歷史學者의 논평은 洪以燮氏와 金潤坤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金潤坤氏는 李重煥의「擇里志」[8]와 清潭 李重煥[9]의 두편의 논평이 있다. 그에 의하면 이중환이 어느 한 곳에서도 그 자신이 安住할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말한 점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라는 뜻 같다고 하여 그 자신의 能動的인 努力과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最善을 다한 主體的 努力을 강조하였다[10]. 그리고 李重煥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생산활동에 의해서 衣食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地理的 環境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持論이요 思想이라고 평하였다[11]. 이리하여 金潤坤氏는 실제 경험을 통하여 自我의 自覺에 도달한 李重煥은 우리나라의 실지 실정에 입각한 실제적인 思考를 추구한 實學派 學者들의 先驅者의 한사람이라고 평하였다[12].

洪以燮氏는 일찌기 그의「朝鮮科學史」에서 光文會本의 解題를 인용하면서 擇里志는 世宗 이후 中國式에 의한 官撰地理誌의 전통에서 이탈된 近代的 地理書로서 風水地理的인 安住陽宅論의 思想이 약간 가미되었으나 地理學으로서의 理論的 構成을 지닌 人文地理學書라 하였다[13]. 그 후 그는 최근에「擇里志에 나타난 李重煥의 地理思想(Yi Chung-hwan's Geographical Thought in T'aengniji)」에서 擇里志는 단순히 地理書로서만 이해하기 보다는 그 시대의 정치현상을 비롯한 諸社會的 狀況을 記述한 著書로서 읽혀져야 된다고 역설하고, 李重煥의 寫實觀(realistic view)과 그 시대 문제에 대한 人本主義的 接近法(humanistic approach)을 높이 평가하였다[14].

4) 徐樹仁, 擇里誌研究序說,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1963. pp. 83~90.
5) 盧道陽, 八域志「可居地」解說,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1963. pp. 91~96.
6) Yoon, Hong-Key, Taekri-Ji: A Korean Settlement Geography, Brigham Young University, 1971.
Yoon. Hong-Key, Taengni-Ji: A Classical Cultural Geography of the Korean Settlement, 1975.
7) Yoon, Hong-Key, op. cit. 1975.
8) 金潤坤, 李重煥의「擇里志」, 實學研究入門, 史學會編, 一潮閣, 1973, pp. 119~145.
9) 金潤坤, 清潭 李重煥, 實學論叢,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75, pp. 409~415.
10) 金潤坤, 前揭書 1975, p. 411.
11) 金潤坤, 前揭書 1973, pp. 126~127.
12) 金潤坤, 前揭書 1975, p. 411.
13) 洪以燮, 鮮朝科學史, 正音社, 1949. pp. 250~251.
14) Hong I-sop, Yi Chung-hwan's Geographical Thought in T'aengniji, KOREA JOURNAL, Vol. 14, No. 3, 1974, pp. 40~44.

特히 홍이섭 敎授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國防問題에 대한 現實的 해결책을 李重煥이 강구하였다는 점을 밝힌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의 고찰이라 하겠다. 또한 홍이섭 교수가 擇里志의 基本思想을 utopia의 추구라고 본 점이다. 즉 法과 政府 및 社會的 狀況에 있어서 理想鄕인 utopia의 추구를 택리지의 기본 사상으로 본 것은 李重煥의 思想的 原流를 통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他實學者들이 理想鄕을 논함에 있어서 法과 질서, 사회현상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반면 李重煥은 오히려 場所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비하여 盧道陽 敎授는 사람이 살만한 곳 즉 可居地가 어디인가를 논한 것이 擇里志의 中心思想이라하여[15] 立地的인 面을 중시하였다. 이와같이 그 社會的 背景과 場所 중에서 어느 것을 主體로 삼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淸潭은 擇里를 主體로 하여 可居地의 立地와 그 構造를 논한 점에서 李重煥의 基本思想은 最適生活空間의 追求라고 보여진다. 택리지에 나타난 또하나의 主要思想은 國防的 戰略槪念에 입각한 安保觀이다. 그러므로 擇里志의 基本內容은 最適生活場所를 추구하기 위한 聚落立地論과 國家의 安全保障을 구현하기 위한 國防地理論의 展開라 할 수 있다. 本硏究는 이상의 두 主要內容에 나타난 李重煥의 地理思想과 그 形成背景을 考察코자 한다.

Ⅲ. 擇里志의 構成과 內容

擇里志는 四民總論, 八道總論과 各論, 卜居總論, 總論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民總論에서 李重煥은 民에는 士農工商의 네 계급이 있으나, 이는 本質的으로 平等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士大夫는 農工商의 業을 할 수 있어도 農工商을 本業으로 하는 사람은 士大夫의 일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사대부를 중하게 여기게 되었다」[16]하여 신분의 차별이 생겨난 동기로 보았다. 이 인용문에 나타난 다른 뜻은 士大夫만이 모든 행위를 合理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人口集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士大夫는 옛 성인의 법도를 잘 지키고 禮를 숭상하는 계급이란 점에서 士大夫는 生의 保存을 위한 本能的 經濟活動 이외에 生의 만족을 추구하는 經濟生活을 영위하는 集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때 士大夫를 分析의 對象으로 선정함으로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人間居住地의 立地를 분석할 수 있게된다. 淸潭은 만족한 經濟生活의 원천은 富이며,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인간은 살만한 곳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理論定立의 方向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째 부분은 八道總論과 平安道, 咸鏡道, 黃海道, 江原道, 慶尙道, 全羅道, 忠淸道, 京畿道로 구성 된다. 그리고 各道를 地域單位로 나누어서 自然 및 人文現象과 歷史的 事實을 記述하여 道別 地域現象을 설명하였다. 「八道總論」은 地誌의 序論 部分으로서 韓國의 關係的 位置와八道의 歷史的 背景및 士大夫의 形成原流를 기술 하였다.

道別 地域現象에 대한 分析의 目標는 人間의 理想的인 居住地를 발견하는데 두었으며,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士大夫의 활동 장소와 富의發生地가 어디인가를 설명코자 하였다. 그리고 李重煥은 道內의 地域을 하천과 산맥에 의하여 區分하고 人間과 自然環境間의 關聯性의 입장에서 地域의 特性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咸鏡道」에서 「태조가 장수로서 왕씨로 부터 왕위를 얻었으므로, 그를 도와준 공신들은 서북 방면의 땅장들이 많았다. 이미 나라를 얻은 다음에는 서북 사람을 높은 자리에 등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평안도와 함경도 두 도에서는 삼백년 동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고,…… 그런고로 서북 방면의 함경도와 평안도의 두 도는 살만한 곳이라 할 수 없다.」[17]고 하여 國家政策이 士大夫의 居住地 選定에 미친 영향을 밝혔다.

「忠淸道」에서 차령산맥의 북쪽은 「그 풍습이 서울과 가까워서 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살 곳을 택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18]라고 하여 社會文化的 類似性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士大夫의 集中地인 서울과의 距離가 住居選定에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방어상 유리한 地點과 土地가 비옥하고 物資交流에 편리한

15) 盧道陽 역, 택리지, 한국자유교육협회 1972, pp. 19~20.
16) 李重煥著, 擇里志, 李泳澤譯註 1975. p. 16.
17) 李重煥, 前揭書(咸鏡道編) pp. 36~37.
18) 李重煥, 前揭書(忠淸道編) p. 86.

지점에 富가 축적됨으로서 士大夫가 출현할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세째 부분은 現代地理學의 聚落立地論에 해당되며, 「地理」「生利」「人心」「山水」의 네 要素를 聚落立地因子로 고려하고, 이상적인 聚落立地는 네 要素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地理」는 自然的 條件으로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理, 朝山朝水로 細分하여 고찰하였다. 「生利」는 經濟에 해당되며 「사람은 世上에 태어나면 벌써 바람과 이슬로 음식을 대신하지 못하며, 깃털로서 몸을 가리는 옷을 대신하지 못한다. 부득이 衣食을 위하여 生業에 종사하게 된다. 위로는 선조와 부모를 모셔야 하며, 아래로 妻子, 奴婢를 거느려야 하니, 財利의 經營을 넓히려 하지 않을 수 없다.」[19]고 하여 生活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需要의 필요성의 역설하였다. 그리고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땅이 기름진 것이 최상이며, 배와 수레,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어서 있는 물자와 없는 물자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다.」[20]라고 하였다. 즉 이것은 農業과 商業의 最適地가 富를 축적하는 最上의 場所라는 것을 의미한다. 特히 農耕社會에서는 土地의 비옥도가 財의 生産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李重煥은 벼 종자를 심어 수확되는 量을 기준으로 土地의 質을 類型化 하였다. 즉 그는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땅이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고, 또 목화 재배에 알맞는 곳을 말한다. 논에 벼종자 한말을 심어서 60斗를 거둘수 있는 곳이 上土이고 4,50斗를 거두는 곳은 다음이며, 30斗 이하인 곳은 땅이 메말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21]하여 비옥도를 可居地의 一要素로 삼았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財貨의 交換場所라는 것이다. 이것은 李重煥이 結節地點(nodal point)의 機能을 인식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더욱 나아가서 淸潭은 財貨의 交換手段으로 말, 수레, 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地形條件下에서는 河川利用이 바람직 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업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最適地는 강과 바다가 서로 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例로서 金海의 七星浦와 江景 等을 제시하고, 物資의 交易量이 많으면 많을 수록 富가 增大되고, 相互作用의 정도가 높은 結節地點에는 큰 도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세째 「人心」은 社會的 因子에 해당된다. 그는 「마을의 인심이 착한 곳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심이 착하지 않은 곳을 택하여 산다면 어찌 지혜로운 일이라 하겠는가」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살만한 곳을 선택하는데는 그 지방의 풍속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鄕里에서 살고 싶으면 인심이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말고, 비록 건조하고 습함이 알맞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색목이 많이 사는 곳을 찾지 않으면 안될 형세이다. 그러함으로서 비로소 방문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기쁨이 있으면, 또한 문학을 연마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22]하여 同質的 社會集團內에서 만이 communication이 자유로이 이룩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것은 오늘날 社會生態學的 槪念의 일부라고 인식된다. 이와같이 李重煥은 社會的 因子로서 풍속과 同一集團內의 對話를 중시여겼다.

네째 「山水」는 山水總論, 山, 山形, 海山, 山水勝地, 四群山水로 구성하여, 우리 나라의 自然景觀과 한국의 공통적인 聚落立地 類型을 記述하였다. 前者는 단순히 自然景觀의 地域的 記述에 거친 것이 아니고, 自然의 아름다운 景觀이 인간의 정신을 맑게하여 준다고 봄으로서 自然景觀을 觀光資源 내지 休養空間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後者의 「溪居」에서 「오직 시냇가에 사는 것은 평온하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경치가 있고, 또 관개와 농경지를 경작하는 이익이 있는 까닭으로 바닷가에 사는 것은 강가에 사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강가에 사는 것은 시냇가에 사는 것과는 다르다.」[23]고 하여 溪居의 우위성을 논하였다. 이와같은 思考는 이 시대의 經濟活動의 主流가 農業인 점을 비롯하여 人間과 自然環境과의 心理的 調和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擇里志의 네째 부분인 總論은 結論에 해당된

19) 李重煥, 前揭書(生利編) p.137.
20) 李重煥, 前揭書(生利編) p.138.
21) 李重煥, 前揭書(生利編) p.138.
22) 李重煥, 前揭書(人心編) p.162.
23) 李重煥, 前揭書(溪居編) p.221.

다. 우리나라의 歷史를 통하여 씨족의 발생과 계급의 형성을 살피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士大夫 間의 向合과 背反의 와중에서 인간이 설 땅은 어디인가 라고 自問하였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不調和가 深化되면 살 곳이 없어진다고 경고하여, 그 時代의 政治 社會相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살 곳을 찾아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士大夫의 理想的인 可居地는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時代的 背景下에서 淸潭은 그의 불행을 감수하며, 전국에 걸친 답사를 통하여 그의 중요한 思想을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Ⅳ. 李重煥의 地理思想

現代地理學은 立地와 環境分析을 기반으로 하여 地域現象의 空間的 結合을 연구하므로서 人間世界로서의 地球(the earth as the world of man)를 보다 合理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24]. 그러므로 地理學者들은 地表上에 형성된 諸現象의 立地와 空間的 分布를 설명하고 예견할 수 있는 理論 開發에 관심을 가지며[25] 이러한 理論을 바탕으로 現代地理學者들은 장차 地表上에 형성될 諸現象의 空間的 問題를 해결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미래 세계를 설계코자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現代地理學은 諸現象의 最適立地와 最適利用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

李重煥은 이미 18c에 人間 居住地의 立地分析을 통하여 最適立地問題를 인식하였다. 擇里志에 전개된 基本思想인 最適生活空間의 추구는 現代地理學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와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淸潭이 추구한 最適生活空間은 自然的 經濟的 社會的 安保的 諸條件을 理想的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場所인 것이다. 그러나 現實世界에서 이와같은 理想的인 場所의 選定은 어려우므로 「사람은 비옥한 토지와 넓은 들판과 지리가 아름다운 곳을 택하여 집을 짓고 사는것이 좋다. 그리고 10리 밖이나 혹은 반나절이 걸리는 곳에다가 名山이나 아름다운 물이 있는 곳을 사서 매양 생각이 나면 한번씩 왕복하여 근심을 달래고 혹 유숙했다가 돌아올 수 있다면 이는 계승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27]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의 生活空間은 住居및生産空間과 休養空間의 효율적인 結合이라 볼 수 있다.

淸潭이 추구한 最適生活空間論과 安保論의 전개에서 現代地理學이 指向하는 基本的 地理思想인 立地와 空間的 相互作用, 人間·環境關係, 地域的 相異性의 槪念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擇里志에 論述된 그의 地理思想을 구체적인 實例를 들어 考察코자 한다.

1. 立地와 空間的 相互作用論

人間生活은 일정한 場所의 점유에서 시작되며 이 점유된 장소에서의 생활이란 고립을 의미하지 않고 상호관련성을 지닌 생활을 의미한다. 고전 지리학에서 地理的 思想의 기본인 立地는 단순히 장소의 위치만을 나타내는 where가 아니고 관련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된 철학적 의미를 지닌 where 이었다[28]. 그러므로 立地槪念은 site와 situation이라는 兩面性을 내포한다. site는 그 장소 자체의 內的 本性을 의미하며, situation은 他場所와의 關聯性을 나타낸다[29]. 立地한다는 것은 相互作用을 뜻한다. 그러므로 一定場所의 意義는 他場所와의 關聯性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결과 結節地點(nodal point)이 발생된다.

李重煥은 可居地를 選定함에 있어서 그 場所의 內的 本性을 地形 水利等과 관련시켜 설명함으로서 site의 槪念을 인식한 것 같다. 예를 들면 「卜居總論」의 「地理」에서 「집터를 정하려면 반드시 수구가 잠기고 내부의 들이 펼쳐진 곳을 착안하여 구할 것이다. ……무릇 사람은 陽氣를 받아 사는 것인데, 하늘은 곧 양기의 빛이므로 하늘이 작게 보이는 곳은 결코 살 곳이 못된다. 이런 까닭으로 들이 넓을수록 더는 더욱 좋은 곳

24) Jan O.M. Boeak, Geography; its scope and spirit. 1965, p.79.
Robert E. Dickinson, The makers of Modern Geography, London, 1969, pp.277~8.
25) M. Yeates,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Analysis in Economic Geography, Prentice-Hall, 1968. p.1
26) Peter Haggett, GEOGRAPHY: A MODERN SYNTHESIS, HARPER & ROW, 1972, pp.16~18.
27) 李重煥, 前揭書(溪居編) pp.229~230.
28) F. Lukermann, The concept of location in classical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ican Geographers. Vol. 51, 1961, p.194.
29) Jan O.M. Broek, op. cit. p.6.

이 된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항상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기후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인재가 많이 태어나고 또한 질병도 역시 적다.」[30]고 하였으며, 「사방의 산이 멀리 있어서 평탄하고 넓으며, 산맥이 평지로 뻗어 내려 강물을 만나 그쳐서 터를 만든 것」[31]이 호조건이라 하여 地形的 要素를 고려하였다. 또한 그는 「무릇 물이 안나는 땅은 자고로 살 곳이 못된다……. 집터는 보자리와 달라서 물은 財祿을 관할하는 것이므로 큰물이 있는 곳이면 부유한 집이 많고, 번성하는 이름난 촌락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역시 澗水 물이 모여드는 곳이라야 대를 이어 오래도록 살 터가 된다.」[32]고 하여 聚落立地因子로서 물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즉 그는 훌륭한 site는 좋고 풍부한 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聚落立地의 基本原理를 이해한 것 같다. 이와같이 清潭이 site를 立地分析에서 고려한 것은 전통적인 風水地理說의 영향이라 보여지나, 일정 장소의 自然的 特質을 다소 객관화시킬려는 의도가 나타나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風水地理說을 원용하여 聚落立地에서 自然環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화시킬려고 한것 같다.

그다음 李重煥이 인식한 空間的 相互關聯性과 距離의 作用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卜居總論」의 「生利」에서 財物을 구 할 수 있는 장소는 「배와 수레,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서 있는 물자와 없는 물자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곳」[33]이라 하여 人的 物的 資原이 集中하여 交換이 이루어지는 流通地點에서 財貨의 획득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場所間의 相互關聯性을 인식하고, 그 관련성이 발생하는 장소인 結節地點의 機能을 인식한 점은 卓見이라 평할 수 있다.

원래 初期市場은 商品의 外的 交換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平野와 丘陵의 住民과 같은 相異한 住民間의 境界地點에, 해안과 하천의 접합지점에 市場이 형성된다[34]. 清潭은 이러한 現象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例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충청도에서는 錦江의 물 근원이 비록 멀지마는 공주의 동쪽은 물이 얕고 여울이 많아서 배가 통하지 못한다. 扶餘, 恩津에서부터 바다의 조수와 통하기 시작하여 白馬江이하 鎭江 일대는 모두 배가 통하여 이익을 얻는다. 오직 恩津과 江景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바다와 육지 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쪽의 들판 가운데서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룬다. 바닷 사람과 산골 사람이 모두 이곳에서 물건을 내다가 서로 바꾼다. 매년 봄과 여름 사이에 잡은 생선과 해초를 캘 때는 비린내가 온마을에 가득하고, 큰배 작은 배가 밤과 낮으로 몰려 들어 항구에 담 같이 늘어서 있다. 한 달에 여섯번씩 열리는 場에는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온 화물이 모여서 쌓인다.」[35]는 것이다. 이러한 李重煥의 관찰에서 본다면 이당시 상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 같다. 나아가서 그는 地域의 自然的 人文的 特性의 差異로 인한 資源의 特化現象은 地域間의 相互作用을 발생시키며, 相互關聯性이 큰 地域일수록 財의 획득과 富의 축적이 많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즉 咸鏡道에서 「안변의 서북쪽 덕원의 경계인 바닷가에 元山村이 있는데, 갯사람들이 모여 살며 고기잡고 해초캐는 것이 업이다. 바닷길 동북쪽으로 六鎭과 통하므로 六鎭과 바닷가 여러 고을의 상선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머문다. 대개 생선과 소금, 海菜, 마포, 다리, 돼지가죽, 인삼, 棺槨의 재료가 모두 이땅에서 생산되므로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서울의 여러 상인들이 모여 사고 팔고하여 화물이 많이 쌓여 큰 도회를 이룬다. 주민들은 팔고 사고하는 것을 일삼아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36]고 하여 이 현상을 설명하였다.

清潭先生은 「경기도의 바닷가 마을은 비록 조수가 통하는 냇물이 있어도 서울이 가까운 까닭으로 장삿배가 크게 모이지 않는다.」[37]고 하여 아무리 바다와 하천이 접속되어 자연적 조건이 유리할 지라도 結節性이 큰 大都市에 인접한 結節地點은 화물의 집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것은 소위 urban shadow 현상을 파악한 훌륭한 理論으로서 그의 뛰어난 관찰력의 所

30) 李重煥, 前揭書(地理編) p. 134.
31) 李重煥, 前揭書(地理編) p. 135.
32) 李重煥, 前揭書(地理編) pp. 135~136.
33) 李重煥, 前揭書(生利編) p. 138.
34) Brian J. L. Berry,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Prentice-hall, 1967, p. 109.
35) 李重煥, 前揭書(生利編) pp. 141~142.
36) 李重煥, 前揭書(咸鏡道編) p. 36.
37) 李重煥, 前揭書(生利編) p. 142.

産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정치 경제 문화활동의 中心地 로서의 漢陽은 他地域과의 關聯性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最大의 富를 축적한 곳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漢陽과의 距離가 가까울 수록 居住地로서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차령산맥의 북쪽은 서울과 가까우므로 士大夫가 모여 사는 곳이 되었고, 한강 상류에 자리잡은 충주읍도 水上交通으로 서울과의 접촉이 편리하여 士大夫의 거주지로서 적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는 원주민이 아니던 사대부가 쉽게 살 수 없는 곳이라 하여, 두 지점간의 相互作用에는 距離가 크게 작용함을 밝혔다.

李重煥先生은 物資의 移動에서 運送費를 最小化하기 위한 方法을 강구하였다. 즉 상이한 交通手段의 差異에서 발생하는 運送費構造를 설명한다. 「물자를 옮기어 바꾸는 방도는 神農과 聖人의 법이며, 이러한 법칙이 없으면 재물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말이 수레와 같지 않고, 수레가 배와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으므로, 수레가 다니기에 불편하다. 온나라의 장사하는 자는 모두 말에다가 화물을 싣는다. 길이 멀면 운송 비용 때문에 이익이 적어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배로써 화물을 싣고 운반하여 생기는 이익보다 못하다. 우리나라는 동서남의 삼면이 모두 바다이고,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38]는 것이다. 즉 장거리 수송에는 말 보다 수레가, 수레 보다 배가 운임이 적게 든다는 것으로서 오늘날 運送費構造論과 일치하는 理論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理論을 國土環境과 결부시켜 한국에 알맞은 交通手段을 제시함으로서, 實用을 추구하는 實學者의 면모를 볼 수 있다. 山地 地形이 우세한 한국의 실정에서 하천과 바다를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므로, 財의 획득이 유리한 場所는 강과 바다가 서로 통하는 地域이라고 結論짓고 있다.

清潭은 最適可居地는 site와 situation이 우수하여 財貨創出이 유리한 장소라고 보았다. 「상주는 일명 洛湯이라 부르며, 조령 아래있는 제일 큰 도회지이다.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으며, 북쪽으로 조령이 가까와서 충청, 경기와 통하고 동으로는 낙동강에 임해서 金海, 東萊와 통한다. 말로 운반하거나 배에 실어 운송하는 길이 남북으로 통하여 수륙교통의 집합지가 되었다. 이것은 무역하기에 편리하므로 이 지방에는 부유한 사람이 많고 또한 이름난 선비와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 많다.」[39]고 한 것은 最適居住地의 한 例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清潭은 可居地의 選定에서 相對的 立地(relative location)를 인식함으로서 空間的 相互作用論의 體系化에 공헌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人間—環境 關係論

人間—環境關係(man-environment relations)의 概念은 地理思想의 基本이다. 地理學者들은 環境을 地表上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諸條件의 總體라고 본다[40]. 近代地理學者들은 주로 自然環境만을 環境으로 인식하여 人間과 自然간의 關聯性을 분석하였다. Ritter는 1864年「comparative geography」에서 人間과 自然現象間의 關係를 地理學의 中心原理라고 주장하였다[41]. 오늘날에 있어서도 Ackerman은 理代地理學의 目標는 地表上의 人類와 自然環境으로 구성된 광대한 相互作用體系의 이해라고 한다[42]. 이와같이 人間—環境 體系의 研究는 地理學이 추구하여온 主要한 分野라고 볼 수 있다.

李重煥은 擇里志에서 人間과 自然環境間의 關聯性에 의하여 地域의 諸現象을 설명코자 하였다. 그의 人間•環境 關係論은 人間에 대한 自然環境의 영향, 창조력을 가진 人間이 自然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그리고 環境知覺의 3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人間에 대한 自然環境의 영향은 주로 그의 「地理」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릇 수구가 엉성하고 텅 빈 넓은 곳이면 비록 좋은 밭이 만 이랑과 큰 집 천 간이 있더라도 대를 이어 살지 못하고 자연이 흩어지고 없어져서 망하고 만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항상 환하

38) 李重煥, 前揭書(生利編) pp. 140~141.
39) 李重煥, 前揭書(慶尚道編) p. 65.
40) Peter Haggett, op. cit. p. 10.
41) Robert E, Dickinson, op. cit. p. 36.
42) E. A. Ackerman, Where is a research fronti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3, 1963, p. 435.

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기후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인재가 많이 태어나고 또한 질병도 적다.…… 무릇 땅에 生氣가 없고 길한 기운이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는다.」[43]라고 한 것은 自然이 인간의 생활과 인재 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이다. 이것은 아마도 環境決定論的인 風水地理說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卜居總論」의 「人心」에서 「우리나라 八道 가운데, 평안도는 인심이 순박하고 厚하여 첫째이고, 다음은 경상도로서 풍속이 진실하다. 함경도는 지역이 오랑캐와 접하고 있어서 백성이 모두 성질이 굳고 사나우며, 황해도는 산수가 험한 까닭에 백성의 성질이 사납고 모질다. 강원도는 산골 백성들인 만큼 어리석고, 전라도는 狡險함을 숭상하여 그른 일에 쉽게 움직인다. 경기도의 도성 바깥 들판 마을들은 백성의 재물이 빈약하고, 충청도는 세도와 이익에만 전념하는데, 이것이 八道 人心의 대략이다.」[44]라고 평하였다. 이것 역시 自然環境이 人間性의 형성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思考의 표현이다. 그러나 淸潭이 부언하기를 이것은 서민을 논한 것이지 士大夫의 풍속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敎育程度가 높고 思考를 合理的으로행하며, 禮를 갖추어 생활할수 있는 社會階層인 士大夫는 自然環境에 의하여 人間性이 형성된다기 보다는 社會制度나 규범 內에서 人品이 형성된다고 본 것 같다.

둘째 李重煥의 自然에 대한 人間의 영향을 살펴 보자. 「평안도」에서 「조선의 건성기에는 땅이 좁고 백성이 많아 많은 산을 개간하였으나, 그후 여러 차례 청나라 군사 때문에 땅이 많이 황폐되었다. 또한 왕씨가 통일한 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삼남 지방으로 옮겨가서 지금은 들은 넓으나 사람이 없어 산에서 농사짓는 자가 드물다.」[45]고 하여 人口數의 變化에 따르는 土地利用狀況의 變化를 관찰하여, 人間에 의한 地表의 變貌를 다루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운교에서 부터 강릉府의 서쪽 대관령까지는 평지거나 높은 영이거나를 막론하고 길은 빽빽한 나무들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나흘 동안 하늘이 보이는 날이 없었다. 그런데 수십년 전부터 산과 들이 모두 개간되어서 농경지로 되고, 촌락들이 서로 접하여 한치의 수목이 없어졌다. 이와같이 미루어 보면 다른 마을 역시 이러할진대, 어진 임금의 성은을 입어 사람이 점점 늘고 번성함을 볼 수 있으나, 산천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옛날 인삼의 산지는 보통 嶺西地方의 깊은 두메였으나, 山童들이 火田을 만드느라고 들을 태움으로 인삼의 산출이 점점 감소하고 매번 장마를 당하면 산이 무너져서 한강에 흘러 들어가니 한강 물이 점점 얕아진다.」[46]고 하였다. 이것은 人口增加로 인한 土地의 耕地化現象을 記述하면서 人間에 의한 自然環境의 變化過程을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산과 들이 耕地化하는 과정을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人口增加現象과 결부시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연파괴 현상을 애석히 여기고 있다. 또한 일정 환경 파괴의 문제가 他現象에 有機的으로 관련되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이것은 環境的 不均衡(environmental imbalance)을 인식한 것으로서, 環境的 平衡(environmental equilibrium)을 침해하는 파괴(destruction), 過度生産(overproduction)과 狀態의 變化(change of state)와 같은 processes의 槪念[47]을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李重煥의 人間에 의한 地表의 變貌 파악은 높은 수준의 人間·環境 關係論이라 하겠다.

또한 그는 「山水論」에서 「山形」을 記述하면서 「大邱에 있는 八公山은 또한 돌로된 봉우리가 옆으로 뻗쳐있고, 산의 동쪽과 서쪽에 시냇물과 산이 자못 아름답다. 다만 산 서쪽에 山城을 쌓아서 외적을 막는 중요한 鎭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름답지 못한 점이다.」[48]하여 自然에 무질서적 人工施設의 가미는 오히려 自然環境의 調和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思考는 오늘날 開發過程에서 파생되는 자연파괴로 인한 不協化의 問題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卓見이라 볼수 있다.

세째 環境 知覺(environmental perception)의 인식이다. 「山水勝地」에서 「바닷물이 푸르러 하늘과 하나로 붙은 것 같고, 앞을 막는 것이 없

43) 李重煥, 前揭書(地理編) pp. 134~135.
44) 李重煥, 前揭書(人心編) p. 146.
45) 李重煥, 前揭書(平安道編) p. 27.
46) 李重煥, 前揭書(江原道編) pp. 54~55.
47) John F. Kolars & John D. Nystuen, GEOGRAPHY, Mc GRAW-HILL, 1974. pp. 385~389.
48) 李重煥, 前揭書(山形編) p. 204.

다. 바닷가에는 마치 강변이나 시냇가와 같은 작은 돌과 기이한 암석이 언덕 위에 섞여 있어 푸른 물결 사이로 보일락말락한다. 해안에는 전체가 찬란한 눈 같은 모래로서, 밟으면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나며 마치 구슬 위를 걸어가는 듯하다. 모래 밭 위에 해당화가 찬란하게 피어 있고 군데군데 소나무 숲이 축 늘어져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안으로 들어가면 문득 마음이 변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경지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사물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도록 황홀하여 공중으로 떠오르고 허공을 걸어다니는 기분이다. 이곳을 한번 지나간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10년이 넘어도 안면에 산수의 기상이 남아 있다.」[49]고 하여 「대저 山水라는 것은 정신을 기쁘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다.」[50]고 적고 있다. 이것은 環境質에 대한 知覺的 思考라 할 수 있다.

上記의 人間—環境 關係論의 展開에서 고찰컨데 李重煥은 環境決定論者가 아니며, 그 主體는 어디까지나 人間이고, 自然環境은 人間의 思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時代에 앞선 뛰어난 地理學者였다고 평할 수 있다.

3. 地域的 相異性의 認識

Hartshorne은 地理學을 人間世界로서의 地球의 場所間의 다양한 特性을 記述하고 說明하려는 학문이라고[51] 정의한 것은 地域的 相異性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近代地理學의 성립 이전의 地域에 대한 地理的 硏究는 단순히 行政區域에 의하여 境界를 나누어 諸地域事實을 記述하는데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地方을 行政區域別로 나누어 지방의 연혁과 人文 및 自然現象을 個別的으로 기술하여 治道上 유용한 政策資料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李重煥의 八道地誌는 단순한 地方誌的 성격에서 벗어난 地理學的 측면에서 地域現象을 서술한 것이다. 즉 「平安道」에서 「대체로 청천강 이남을 淸南이라고 하는데, 지형이 동서가 협소하다. 이곳에서 북쪽을 소위 淸北이라 하는데 지형이 동서로 연하여 매우 넓다.」[52]고 하여 河川에 의하여 두개의 自然地域을 구분하여 自然現象의 相異性을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두 지역간의 社會文化的 現象의 差異點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淸南은 內地에 가깝고 풍속이 문학을 숭상하나, 淸北은 풍속이 유치하고 무예를 숭상한다.」[53] 「咸鏡道」에서도 「함흥 이북은 산과 강이 험악하고 풍속이 사나우며, 춥고 땅이 메말라 곡식이라고는 오직 조와 보리뿐이다. 벼는 적고 목화도 전혀 없다. 원주민들은 개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겨울의 추위를 막으며 굶주림을 참는 것은 마치 여진족과 같다.」[54]고 하여 一定 地域의 自然및 人文的 特性을 考察하였다. 그리고 「江原道」도 태백산맥을 경계로 東部와 西部로 구분하였고, 「慶尙道」를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江의 동쪽을 左道, 西쪽을 右道로 구분하여 「좌도는 땅이 메마르고 주민이 가난하여 비록 검소하게 살지만 문학하는 선비가많다. 우도는 땅이 기름지고 주민이 부유하여 호사함을 좋아하고 게을러서 문학에 힘쓰지 않으므로 훌륭한사람이 적다.」[55]고하여 地域의 相異性을 人文및 自然的 現象과 관련하여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李重煥의 地誌論의 특징은 첫째 비록 道를 中心으로 地域現象을 論及하였으나 道이하의 下部地域은 行政的 境界가 아닌 地形的 要素에 의하여 區分한 점이다. 두째 地域區分에 거친 것이 아니고 區分된 地域間의 特性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現代地理學이 추구하는 地域的 相異性을 인식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세째 地域性을 人間—環境 關係的 측면에서 분석설명한 점이다. 이와같은 그의 地誌論의 展開는 전국에 걸친 오랜 답사를 통하여 自然과 人文現象에 대한 觀察이 그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즉 地域間의 自然的 장애로 인하여 地域住民의 生活이 相異하다는 점을 그는 발견하였을 것이다. 또한 淸潭은 地方現況을 상세히 기록한 官撰地理誌의 內容에서 地域性을 파악할 수 있는 풍부한 資料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風

49) 李重煥, 前揭書(山水勝地) p.212.
50) 李重煥, 前揭書(山水勝地) p.229.
51) Richard Hartshorne,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Rand McNally Company, 1966, p.21.
52. 李重煥, 前揭書(平安道書) p.27.
53) 李重煥, 前揭書(平安道編) p.28.
54) 李重煥, 前揭書(咸鏡道編) p.33.
55) 李重煥, 前揭書(慶尙道編) p.59.

水地理說이 韓國人의 思考에 미친 영향이 컸으므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보아왔다. 그러므로 그의 人間—環境 關係를 통한 地域現象의 설명은 이러한 바탕위에 自然과의 調和라는 東洋哲學的 思考가 가미되어 그의 思想이 형성 되었다고 思料된다.

V. 李重煥의 國防地理論

李重煥의 國防地理論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地理學的 측면에서 考察한 것이다. 즉 그는 地域의特質 및 自然環境의 利用이란 觀點에서 安保論을 전개시켰다. 淸潭의 安保觀은 首都防衛이다. 이러한 思想은 中央集權的 관료체제하에서 國王이 거주하는 首都가 곧 국가를 의미하므로 首都의 안전 보장이 곧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思考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택리지에 나타난 그의 國防地理論을 例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慶尙道」를 記述하면서 「全道에는 城으로서 지킬 만한 곳이 없으나, 오직 칠곡만은 관아가 성곽 안에 있고 만길이나 되는 산 위에 있다. 남북으로 통하는 큰 길을 가로질러서, 要塞地로서 거대한 방어지가 된다.」[56] 고 하여 칠곡이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제일차적 진지라고 보았으며, 「임진년 왜적이 북상하다가 대탄에 이르러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지키는 군사가 없음을 염탐한 연후에 이곳을 통과하였고 조령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러하였다.」[57] 라고 하여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군사의 배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를 유감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漢陽 북쪽의 방어 지점에 대하여 논급하기를, 「한양의 앞쪽에 큰 강이 막았고, 단지 서쪽 한 길이 황해도와 평안도로 통한다. 도성으로 부터 서쪽으로 五里쯤에 沙峴이 있는데, 그 고개를 넘으면 또 녹반현이 있다. 당나라 장수가 이곳을 지나갈 때 말하기를 한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사람이라도 열 수가 없겠다 하였다.……두 고개와 碧蹄嶺은 모두 관문을 설치할 만한 곳이다. 그러나 온 나라에 길을 가로질러 관문을 만든 곳이 없는 까닭으로 천연적인 험한 곳을 포기하는 것이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벽제령에서 서쪽으로 40여리 가면 臨津 나룻터이다. 곧 한양의 북쪽 강 하류이며, 江岸 남쪽 기슭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성의 모양이다. 또 서쪽으로 가는 길목이고 강을 임하여 꺽이어지듯 험준하여 참으로 지키기에 좋은 곳이다. 성을 설치하여야 할 곳임에도 지금까지 축성하지 않으니 한스러운 일이다.」[58]라고 했다. 淸潭은 방어 문제를 自然環境의 적절한 이용과 결부시켰다.

李重煥은 海上防衛에도 높은 식견을 나타내었다. 즉 그는 漢陽은 漢江을 통하여 西海와 직접 연결됨으로 海上防衛없이는 漢陽의 방위가 어렵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京畿道」에서 그는 「육지가 끝나는 바닷가에 花梁鎭 첨사의 진이 있고, 이 진에서 바다 건너 십리에는 大阜島가 있다.… 섬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으며 남쪽에서 오는 뱃길의 첫 길목이어서 강화와 永宗島 두 섬의 바깥 문에 해당된다. 옛날에는 수군의 營이 있었으나, 지금은 喬桐에 옮기고 牧馬場이 되었고, 지키는 군졸조차 없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다. 마땅히 화량진을 이 섬에 옮겨서 영종도와 더불어 의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59] 라고 論述하였다. 이것은 대부도가 首都防衛를위한 해상 방위망의 前進基地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다음 淸潭은 首都의 방위와 직결되는 강화도의 전략적 위치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강화도는 서울의 관문으로 외적의 방어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삼남 지방의 組稅를 실은 배가 모두 이곳을 거쳐 上京하므로 國防地理的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李重煥은 강화도가 海上基地로서의 가치를 自然地理的 特性과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강화도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堆積物質로 인하여 만조가 아니면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다. 그리고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지역은 암벽이므로 여기에 墩臺를 쌓아 방어하면 천연의 요새가 된다는 것이다. 강화도는 오직 昇天浦와 마주 보는 건너편 한 곳만이 배를 정박시킬 수 있으므로 승천포와 갑곶도의 두 길을 한꺼번에 지키면 섬 바깥은 자연적으로 된 요새라 하였다. 조정에서 강화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섬 주변에 성

56) 李重煥, 前揭書(慶尙道編) p.62.
57) 李重煥, 前揭書(慶尙道編) p.64.
58) 李重煥, 前揭編(京畿道編) pp.121~122.
59) 李重煥, 前揭編(京畿道編) pp.117~118.

을 축조하였으나, 장마로 인하여 성이 무너지고 말았으며, 성을 쌓을 때에 평지의 수렁에 흙과 돌로 메꾸어 기초를 다듬었기 때문에 강 기슭이 모두 견고하여 사람과 말이 통행할 수 있어 연안 40리 곳곳마다 배를 정박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강화도는 전략적 기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았다[60]. 이와같이 이중환은 국가의 안전 보장상 필요한 전략적 기지의 立地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므로서 實證의 實學思想을 전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李重煥의 安保論은 대마도와 倭館問題의 논술에서 적극론을 피력하였다. 「대마도는 원래 왜국에 속해 있지 않고, 두나라 사이에 있어서 왜국이라 하여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척하고, 우리 나라를 빙자하여 또한 왜국에게 중요한 척보이는 박쥐의 구실을 하여 스스로 그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토벌하여 신하로서 예속케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島主를 해마다 한 차례씩 조정에 오게 하여, 신하로서 복종케하면 마땅히 상을 내리는 것으로 例를 삼아, 그 전과 같은 액수를 주어 후하게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館을 지어주어 묵게하고 組稅를 실어다 주는 것은 마치 貢을 헌납하는 것과 같아서, 名分이 분명하지 않으니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61] 하였다. 이것은 국가에 이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만 끼치는 대마도에 대한 정벌론을 내세우는 한편 國家內에 자리잡은 異質集團의 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實學者의 이와같은 적극론적 사고 방식의 실천이 아쉬울 뿐이다.

李重煥의 國防地理論은 양차에 걸친 外國의 침략을 받은 결과 전쟁의 피해로 부터 벗어나서 국가를 보위할려는 社會的 自覺의 所産이며, 그가 몸소 전국에 걸친 답사 과정에서 침략의 방지책을 地理學的 觀點에서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Ⅵ. 要約 및 結言

擇里志는 李重煥이 官職生活을 하다가 당쟁에 희생되어 장구한 세월을 일정한 거처없이 각 지방을 답사하면서 自然과 人文現象에 대한 觀察의 결과를 體系化한 것이다.

擇里志에 나타난 淸潭의 基本思想은 最適生活空間의 추구이며, 이러한 그의 中心思想은 現代地理學이 指向하는 最適立地의 추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는 自然的 經濟的 社會的 安保的 諸因子와 관련시켜 理想的인 生活場所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最適居住地의 構造는 住居및 生産活動空間과 休養空間의 효율적 결합이라 보았다. 李重煥은 一定場所의 內的特質과 他場所와의 關聯性이라는 立地槪念에 의하여 理想的인 聚落立地를 分析하였다. 特히 주목할 점은 商業의 發生과 그 活動場所에 대한 論及에서 結節性을 인식한 점과 交通手段의 差異에서 발생하는 運送費構造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地理的 狀況에서 바람직한 交通手段을 제시하고서 成長地點을 분석 설명한 점이다. 그리고 大都市에 가까운 地點은 大都市의 영향으로 結節性이 약화된다는 현상을 발견하므로서, 自然的 條件 보다는 空間的 距離的 要素가 都市的 聚落의 成長에 크게 작용함을 인식한 점이다.

人間—環境 關係論의 전개는 人間에 대한 自然環境의 영향과 自然에 대한 人間의 영향으로 大別할 수 있다. 비록 그가 人間에 대한 自然의 영향을 論述하였으나, 이는 단편적인 기술에 불과하며, 그는 環境決定論者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李重煥은 自然에 대한 人間의 영향과 適應의 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特히 그는 人口增加와 土地利用과의 關係를 論하면서 環境的 平衡의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환경 파괴로 인한 生態系의 變化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어 人間·環境 關係에서 自然과의 調和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自然에 대한 人間心理의 作用性인 環境知覺의 槪念을 認知하였다. 李重煥은 地誌의 記述에서 地形的 要素에 의하여 地域을 區分하여 地域的 相異性을 밝혔으며, 人間·環境關係에 의하여 地域性을 고찰하였다. 李重煥의 安保觀은 소극적 방위와 적극적 방위로 나눌 수 있으나, 그의 安保思想은 首都防衛論으로서, 陸上과 海上防衛로 나누어 國防地理論을 전개시켰다. 그의 國防地理論은 自然環境의 적절한 利用에 기초를 두었다.

18세기 중엽에 李重煥이 인식한 地理思想은 地

60) 李重煥, 前揭書(京畿道編) pp.111~116.
61) 李重煥, 前揭書(慶尚道編) pp.63~64.

域에 內在된 空間體系와 生態體系의 構造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그의 뛰어난 地理思想은 世界地理學史에서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그의 地理思想은 우수한 官撰地理誌의 편찬으로 地理的 知識이 축적되었던 點과 古來로 自然과 人間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한 한국인의 思考가 기초의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淸潭의 地理思想 形成에 보다 중요하였던 것은 壬辰 丙子의 兩戰爭을 치른 후 「實用」·「實證」의 精神과 自我의 自覺에서 나타난 主體的 認識에 바탕을 둔 朝鮮後期 實學思想의 所産이라 볼 수 있다. 李重煥은 國土와 그 住民에 대한 직접적인 觀察에서 國土愛를 느꼈을 것이며, 自我의 自覺은 바로 國土愛와 결부되는 것이다. 李重煥의 實學思想은 바로 國土와 住民에 대한 實地實情의 파악에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韓國學의 定立을 위해서는 韓國人의 地理思想을 考察할 필요가 있으며, 特히 韓國近代地理學의 成立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朝鮮後期 實學者들의 地理思想에 대한 연구는 금후의 과제라 본다. 李重煥의 地理思想小考는 그 試論에 불과 한 것이다.

(서울大 社會大 地理學科 助敎授)

Geographical Thoughts of Yi Chung-hwan, Korea n Human Geographer in the Eighteenth Century

Young-han Park

Summary

Yi Chung-hwan, born in 1690, was a officer of the defense ministry. But he was exiled to a remote island in 1726 because of the political upheaval in Korea, and again expelled to a remote island area in 1727. When he was purged from the government, he left Seoul and travelled in all the provinces of the country except Pyongan and Cholla provinces as far as his legs could carry him.

Even though he did not travel according to a plan, he observed the peopl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almost areas of Korea.

Yi's biography is unclear regarding the life after his release, but it is believed that he completed his major work, Taengniji in 1750. Taengniji literally means the geography of selecting a settlement. The book is based on Yi Chung-hwan's observations during some twenty years of travel on the Korean areas. The importance of Taengniji lies in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and the theory concerning the optimum location for settlement. Prior to this publication Korean geography was the chorography written largely by the government agencies. But Yi's approach differed from this tradition.

Yi Chung-hwan's basic thought is the pursuit of the optimum location for human life. He analyzed factors of settlement location in order to pursue his thought. Another thought is the realistic solu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s.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aengniji

The main content of Taengniji is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favorable locations for settlements.

The book is composed of four parts-Korean social hierarchy and the reason of selecting the favorable living place, analysis of light provinces of Korea, settlement locational factors, and final discussion of ideal place to live in.

In the first part, he dealt with the four classes-gentry, farmers, craftsmen and merchants. He said that all people were originally equal in spite of the division of the four classes. He analyzed the settlement location of the gentry, Sadaebu because the gentry pursued the economic wants. He considered that the occuring place of wealth was not egual on the areas.

In the second part, he discussed the physical and human phenomena of the eight provinces-Pyongan, Hamkyong. Hwanghae, Kangwon, Kyongsang, Cholla, Chungchong and Kyonggi. He utilized methods of historical destriptive and regional approaches.

The third part of the book is the analysis of locational factors of settlements. Locational factors are considered physical geographic factors (the Korean term chiri), econmic conditions (saengni), social and human reations (insim) and the natural scenery (sansu). Yi Chung-whan believed that harmony between four factors was required, and none of them could be neglected. But it seems that he considered eonomic condition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ettlement location.

Six elements of the physical geographic factor

are outgoing direction of water flow, shape of the plain, form of the mountain, color of the soil, principles of water flow, and facing mountains and facing water. Yi gave attention to the soil productivity and exchanging function of goods in the economic conditions. He considered the impact of the neighborhood on human personality and social life as the social conditions. It seems that this idea is similar to the modern social ecological thought. The mind of people is influenced by the good natural scenery.

Yi Chung-hwan discussed three settlement patterns in Korea-seashore, riverside, streamside settlement.

Geographical thoughts of Yi Chung-hwan

Modern geography is concerned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of theories that explain and predict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various characteristics on the surface of the earth. Furthermore geographers pursue the optimization of the distribution and location of the various phenomena. Yi already recognized i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ettlement loca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His geographical thoughts are as follows.

1. Location and spatial interaction

The concept of location is fundamental to geographical thought. Yi recognized the concept of site and situation.

He considered geomorphological features, soil conditions, water, and like in the selection of the favorable settlement.

H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site in a certain place.

Yi Chang-hwan emphasized the function of the transport-trading place as an economic factor of the settlement location. He said that higher interaction could be acquire more goods in a place. The exchange of goods means relationships between places, that is, interac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dea is to perceive the concept of nodality.

He considered water transport was the cheapest medium on the long hauls: Transport by horse is not as good as by cart, and cart transportation is not as good as that by ship. If transport distances are more increased, profits are smaller because of increases of transport costs. Therefore water transport has more profits than land transport on the cost structure of different transport media. He also insisted on the utilization of water transport media because our country was more mountainous. Yi pointed out that the nodal place which was located near the navigable river connecting with the sea was the best location for a trading center. He percived that the nodality of the center near the great city is very low, though the center has good physical conditions.

2. Man-environment relations

Yi Chung-hwan's thinking of man-environment relations can be divided three parts-the influence of natural environment on man, the influence of man on his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erception.

First, he pointed out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affected the human life and human attitudes. It is the representation of environmental determistic ideas. This idea is to originate from the Pungsu hypothesis, Korean traditional idea about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The Pungsu idea is called Geomancy by Hongkey Yun, author of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1976. But Yi pointed out that the personal character of noble class people was not influenc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 Second, Yi observed the man's role in changing the face of the earth.

He observed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growth and land use, and enviornmental

imbalance

I couldn't see the sky in the Daegwanryong area of the Kangwon province because of thick forests covering the mountion slopes and plains However, this area has been changed to the cultivated farm land since several decades. Many settlements were settled in the area and people cut down even the small trees. The pop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land is beconimg overcultivated.

Ginseng was mainly produced from deep valleys in the west of the Taeback mountains, but the amount of its production gradually decreased because mountain people burned the vegetation in the valley.

The Han river is more and more shallow because of the landslide and sand deposits in the period of flood.

It can be said that he perceived processes of destruction, overproduction and change of state through which environmental equilibrium can be disturbed.

Third, he belived that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made people's mind clear and favorable. Therefore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atural scenery as the recreational space.

3. Concept of areal differentiation

Yi Chung-hwan described regional geography of Korea. He divided areas according to major physical features such as relief and rivers instead of administrative boundary lines, and explained the areal differentiation between areas on the base of man-environment relationships.

Backgrounds of Yi Chung-hwan's geographical thoughts

First, Yi observed the human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through the travel of almost Korean areas during some twenty years in order to search for the optimum site to live.

Seocnd, the Korea suffered two foreign invasion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Under circumstances, there was a social will to rehabilitation from the war damage and socio-economic confusion. A social will appeared to Sirhak thought. Sirhak thought was a pragmatic and realistic thought in the late part of the Yi dynasty. Itwas based on scientific ideas and utilities. Therefore Sirhak memb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conomic activity.

Third, geographical knowledge and data had been stored in the excellent chorography written by government agencies.

Fourth, Korean people had been concerned with relationships between man and nature in the selection of location because of influence of the Pungsu-chiri hypothesis.